

## ARARIO GALLERY

Exhibition Title: Thomas Ruff

Exhibition date: May 28 ~ August 22, 2004

Open: Daily, from 11 am to 7 pm

Entrance fee: adult 5,000 won, student 3,000 won

Tel: +82 41 620 7253

Website: [www.arariogallery.com](http://www.arariogallery.com)

Arario Gallery is pleased to present an opportunity for the public to experience the extraordinary pictorial world of Thomas Ruff, spanning from the early 90s to today, in an exhibition to be held from May 28 to August 22. Since appearing in the international stage in the mid-80s with his portrait series, Ruff has built a unique world of photography involving such themes as *nudes*, *Substrate*, *Sterne*, architecture, newspaper photographs (*Zeitungsfotos*), and posters (*Plakate*). The exhibition at Arario will display not only some of his best-known works such as *Porträts*, *Sterne*, and *nudes*, but also his most recent works. Specially included is the new series *m.d.p.n.*, for which he photographed the fish market designed by the famous architect Luigi Cosenza in Naples in 1929.

In *m.d.p.n.* Ruff applied the method he had used on another architecture project involving works created by Ludwig Mies van der Rohe (*l.m.v.d.r.*). He employs digital technology to create a hybrid image of the market as it appears today and images of the building in its original form and in a primitive urban context, using a sophisticated series of cross-references between past and present. In *m.d.p.n.* he combined, as he had done in *l.m.v.d.r.*, his own photographs and archive photographs in a series, and treated them in the same way, generating a new and autonomous image of classical architecture.

Born in Zell am Harmersbach, Germany in 1958, Ruff is one of the most recognized students of Bernd and Hilla Becher in the Dusseldorf Academy. Since his graduation from the Academy, he has continued to

experiment with various techniques and approached the medium of photography from a broad perspective. Under the assumption that “photography can only capture the surface of things,” Ruff has been experimenting the limits of medium, creating sixteen series in the process. He explains that photography only pretends to show reality. When it comes to picture perfectness, you recognize it, but at the same time, it is not. The works does not imply a direct interpretation of our reality but a manipulative “second reality,” the image of an image which opens up to different kinds of layers of reality through his artistic research. Even if the works don’t appear to state a comment towards certain issues such as social politics or art history, however, working in series, especially for the nudes and portraits, has a quality of reflecting matters of his own generation. The works to be presented in the Arario exhibition are some of his best-known and most recognized, including nine series out of his total sixteen.

One of the main driving forces that allowed Ruff to be so successful in so many genres of photography is his experimental spirit, which leads him into works where he can deal with fresh ideas and new media as opposed to documentary where he has to focus on the real world.

Ruff’s works have been widely exhibited in such venues as Tate Liverpool (2003), Contemporary Fine Arts, Berlin (2004), Kunsthalle Baden– Baden, Germany (2001), and the Center for Contemporary Art in Malmö, Sweden (1996).

## ARARIO GALLERY

전시 제목: 토마스 루프 (Thomas Ruff)

전시 기간: 5월 28일 ~ 8월 22일, 2004

관람 시간: 11:00 am to 7:00pm

입장료: 성인 5,000원 학생 3,000원

문의: 041 551 5100~1

website: [www.arariogallery.com](http://www.arariogallery.com)

아라리오 갤러리에서는 다가오는 5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90년대 초부터 현재에 걸친 토마스 루프의 광범위한 작품 세계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관객들에게 제공한다. 80년대 중반 초상사진 연작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한 이후 루프는 누드(nudes), 서브스트라트(Substrate), 별(Sterne), 건축 (architecture), 신문사진(Zeitungsfotos), 포스터(Plakate). 등을 포함,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통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들, 초상사진(Porträts), 별(Sterne), 누드(nudes)뿐만 아니라 최근 작품들도 선보일 예정으로써 1929년 루이جي 코센자(Luigi Cosenza)가 디자인한 나폴리 수산시장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작업도 (m.d.p.n.) 전시하게 된다.

1958년 독일 켈 암 하메바흐(Zell am Harmersbach) 태생인 토마스 루프는 뒤셀도르프 아카데미에서 번(Bernd) 와 힐라 베커(Hilla Becher)의 지도하에 수학한 대표적인 작가 중 하나다. 뒤셀도르프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루프는 다양한 기법을 실험하고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접근을 해왔다. 루프는 '사진은 사물의 표면만을 포착할 뿐' 이라는 전제 하에 끊임 없이 매체의 한계를 시험하여 이제껏 16시리즈의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루프는 사진은 현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완벽한 사진을 알아볼 수 있지만 동시에 완벽한 사진은 없다는 것이다. 사진은 우리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이 아닌 이미지의 이미지, 즉 조작된 2차적 현실로서, 루프의 미학적 연구를 통해 열리는 다층적 현실을 보여준다. 사진이 사회정치나 미술사 등 특정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연작 작업, 특히 누드나 인물사진과 같은 작업은 본질적으로 동시대인의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요번 아라리오 에서 전시될 작품들은 루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로서 전체 16시리즈 중 9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루프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세계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그가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기록사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입각한 다양한 실험정신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토마스 루프의 작품은 영국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2003), 베를린 컨템포러리 파인 아트(Contemporary Fine Arts, Berlin)(2004), 독일 바덴 바덴 미술관 (Kunsthalle Baden-Baden, Germany)(2001), 스웨덴 말모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The Center for Contemporary Art in Malmö, Sweden)(1996)등에서 광범위하게 전시된 바 있다.

### **Porträts (초상사진)1981-**

영상적 구도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에 입각해 인물사진 장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현대식 표현방식을 모색한 결과 상반신 촬영에 인물의 얼굴을 전면에 배치하는, 그 어떠한 심리적 분석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대한 중립적인 표현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사진은 단지 사물의 표면만을 포착한다는 자신의 전제에 따라 각각의 인물을 석고상처럼 촬영하려는 것이었다. 미소나 웃음, 또는 카메라를 '유혹'하는 등의 감정표현은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대상 인물은 자신 주위의 사람들 중 직관적으로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 동료, 친구, 아카데미의 급우들, 뒤셀도르프 라팅게르 슈트라세의 유흥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촬영에 임하게 됐다.

### **Sterne (별)1989-1992 제작**

학창시절부터 루프는 사진과 천문학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러므로 검은 바탕에 하얀 점이 흩뿌려진 기본적인 구도의 추상화를 고려하는데 있어 하늘을 모티프로 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 장비로는 전문적인 천체사진을 결코 제작할 수 없음을 깨달은 루프는 유럽남부관측소(ESO) 자료실에서 구한 음화 원본 1212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남반구의 밤하늘을 포착한 이 과학사진들은 칠레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슈미트 천체망원경으로 촬영한 것이다.

### **Zeitungsfotos (신문 사진)1990-1991 제작**

신문사진을 레프로 카메라로 칼라 재현 (negative 4 x 5 inch)

1981년에서 1991년 사이 토마스 루프는 독어 일간지 및 주간지에서 2500장 이상의 신문사진을 수집했다. 이 사진들이 지닌 엄숙한 형식은 예술적 이유가 아닌 편집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뉴스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진들의 유일한 존재이유였기 때문이다. 루프는 자신의 자료에서 추려낸 400개 이미지를 재현하고 두 칼럼에 걸쳐 2:1 비율로 인화하여 아무런 설명 글 없이 보여주었다. 이런 표현방식을 택한 이유는 '신문사진' 자체를 연구하는 동시에 이 사진들이 종래의 기능에서 분리되면 어떤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지 모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Herzog & de Meuron (헤르조그와 드메론 건축사진)1991년 -**

1990년 자크 헤르조그 (Jacques Herzog)와 피에르 드메론 (Pierre de Meuron)은 1991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출품을 위해 루프에게 자신들이 설계한 건물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루프는 라우펜의 리콜라 창고를 찍고자 했으나 장거리 여행을 원치 않았던 관계로 바젤에서 사진작가를 고용해 자신이 지시한대로 촬영하도록 했다. 바젤에서 송부된 여러 장의 사진을 컴퓨터로 조합 처리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루프는 그 후에도 과거에 사용한 기법을 토대로 헤르조그와 드메론이 설계한 건물을 여러 차례 촬영했으며 이들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 중 하나는 에베르스발데 대학 도서관 외벽을 디자인하는 것이었는데 루프의 <신문 사진> 시리즈에 포함된 사진을 사용했다.

#### **Plakate (포스터)1996년 - 디지털 처리 몽타주**

1996년에 발생한 일련의 정치 사건은 정치예술에 대한 루프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존 하트펠드(John Heartfeld)의 작품과 20년대와 30년대 사이의 러시아 프로파간다 포스터에 영감을 받아 기존의 시각적 자료를 토대로 한 <포스터> 시리즈를 발전시켰다. 루프는 의도적으로 1996년에는 이미 쇠퇴한 콜라주 기법을 모방함과 동시에 현대 컴퓨터 기술을 접목시켜 이번 시리즈의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했다

#### **nudes (누드 사진)1999년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디지털 방식으로 수정한 포르노 사진들

1998년경 누드사진 작업에 착수한 루프는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화소(pixel) 기반의 추상사진을 소재로 실험을 해보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누드사진을 조사하던 중 포르노 분야를 접하게 된 루프는 인터넷상의 이 사진들이 해상도가 낮아(72dpi) 픽셀구조가 자신이 실험해오던 것과 유사함을 발견했다. 루프는 인터넷 사진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하여 픽셀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처리했다. 희미함과 흐릿함을 유도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간혹 색상을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디테일을 제거했다. 루프는 <nudes> 연작을 통해 오늘날 인터넷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들이 제공해주는 각종 성적 환상 및 행위를 다루고자 했다.

#### **I.m.v.d.r. 1999년 -**

1998년 줄리안 헤이넨(Julian Heynen)은 토마스 루프에게 크레펠트의 쿤스트 미술관에서 개최할 루드위그 미스 반 데 로(Ludwig Mies van der Rohe) 건축사진전을 위해 그가 설계한 1927-1930 사이의 빌라를 촬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진전은 미스 반 데 로에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자 지금은 현대미술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Haus Lange와 Haus Esters의 보수공사 후 재개장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루프는 Haus Tugendhat, Haus Lange, Haus Esters, Barcelona Pavilion 건물들 그 자체와 이 건물들을 찍은 유명한 사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내어 헤르조그와 드메론 시리즈에서처럼 모든 기법을 총동원해 이 두 건물을 촬영했다. 크레펠트에서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 예정인 1938년까지의 미스 반 데 로 건축 회고전을 준비하던 테렌스 라일리(Terence Riley)는 루프에게 현존하는 미스 반 데 로의 나머지 건물들도 촬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건물들 중 일부는 직접 촬영할 수 없었으므로 기존의 영상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 **Substrate (근원) 2001년 -**

루프는 <nudes> 연작에 사용할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의 가상 사진은 더 이상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되는 시각적 자극만을 표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진과 정보가 서로 중첩되는 인터넷상의 사진 홍수 속에서 더 이상 시각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루프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이런 시각적 공허함을 관통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일본만화를 원자료로 삼아 여러 개의 층으로 중첩하고 합성시켜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사진을 만들어냈다.

#### **m.d.p.n. 2002~2003**

유명 건축가인 루이지 코센자(Luigi Cosenza)가 1929년 나폴리에 설계한 어시장을 촬영하는 m.d.p.n.에서 루프는 미스 반 데 로에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법을 적용했다. 디지털 방식을 적용하여 나폴리 어시장을 오늘날의 모습과 원래 모습, 그리고 원시적인 도시적 맥락에서 보여주는 합성적 이미지를 창조하여 과거와 현재를 상호교차시키는 세련된 연작을 탄생시켰다. m.d.p.n. 역시 I.m.v.d.r.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진과 자료사진을 조합하는 연작으로 제작하였으며 이 사진들을 동일한 기법으로 처리하여 고전적 건축물에 새롭고 독자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다.